

희망의 새시대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2>보도자료</h2>	2014. 11. 14(금)	
		작 성	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장 김영문 / 사무관 김기홍 (Tel. 044-200-2248)
			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과장 박동주 / 사무관 차중호 (Tel. 02-2110-1430)
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		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(Tel. 02-2100-2183)	

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 결정

□ 추경호 국무조정실장(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)은 11.14(금)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,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**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**을 심의하였다.

① 심의결과,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700MHz 대역에서 **20MHz폭(718~728MHz, 773~783MHz)**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는 방안 결정

② 아울러 700MHz 대역의 잔여대역(88MHz폭)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(11.11일) 결과 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위원회·미래창조과학부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*에서

- 기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**'15년 상반기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**

* 고위급 정책협의회 : 미래부 차관·방통위 상임위원(공동위원장), 관계부처 실무자, 민간전문가로 구성

- 추경호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“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**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** 내딛었다”고 말하고,
 - 안전행정부의 중심이 되어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, 미래부에게는 **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** 지시했다.
 - 아울러 “700MHz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**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**”며 방통위와 미래부에 당부했다.
-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. 끝.